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투표하세요

투표일은 11월 22일~24일(화~목)동안
각 단대 및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여기, 열다〉 empower@yonsei.ac.kr

18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류김지영 · 김선명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류김지영_아이서 (사회학과 2학년)

2004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대학생연합광고동아리 <애드파워> 18기
2005년 여성주의 공동체 <미묘> 활동
연세대 Club We C.A.N. 문화기획터 <TIUM>
섹슈얼리티 영화제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촘촘한 억압과 모호한 해방에 관하여" 기획단
세계여성학대회 자원활동
서울프린지페스티벌2005 축제상황실 인디스트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기획단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2005 온고지시니

|아이서| 너에게 보이는 모습만이
나의 전부는 아니야.

총여학생회
정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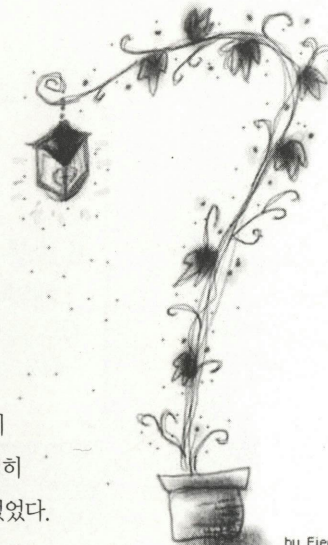
총여학생회
부후보

김선명수_아무도 (사회학과 2학년)

2004년 연세대학교 사회계열 입학
중앙 사진 동아리 <연영회> 활동
2005년 사회학과 여성학 학회 <멤수다> 활동
제8회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기획단
정치경제학 연구회 <목하회> 회장
(준) 이주여성노학연대 팀 <구공탄> 활동

|아무도| 나를 규정하는 박제된
시선과 틀을 거부한다

여성주의 학교



여성주의자로 나를 정체화 하면서 이제껏 지
나쳐왔던 많은 것들을 되새김질 하며 나의 불편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껏 나는 분명히
맞아서 울고 있음에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

여성주의자가 되어 바라본 진실은 분명 참혹하다. 여전히 저 편
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근거 없는 낙관에서 벗어난 나는 이 가부장
들의 세계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암담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 모든
부정의에 대항할 에너지가 있으며 나의 용기를 북돋워줄 동지들이 있다. '그들'은 여전
히 이야기한다. 봐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입 다물고 행복하
게 살아라. 나 스무 살, 다시는 '그들'의 기만에 속지 않으련다.

지금도 곳곳에서 소통할 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 망설임 없이 여성주의
학교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겠다.

글_토닥

★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 공약 정리

1. 적극적인 지속적인 반성폭력운동

1) 반성폭력 행사 열기

학기 중에 반성폭력 행사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인 반성폭력 운동을 펼치고 그 필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담론을 뛰어 넘어, 여성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긍정하며 Empower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운동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특히 강의실 안에서의 언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3) 반성폭력 자치규약 개정

지금의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적용 시기와 범위를 확장하겠습니다. 동시에 새터와 OT 때만 사용되고 끝나는 자치 규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성폭력 캠페인과 운동을 하겠습니다.

4) 성폭력 사건 해결

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1) 여성주의 새내기 OT

3월,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연들을 통해, 대학 공동체 속의 남성 중심적 문화와 성폭력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2) 학내 여성주의 연대 활동

학내의 여성주의 자치 단위들을 지원하고 연대하겠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와 여성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여성주의 소모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2. 여자친구들과 만드는 힘찬일상

3. 함께해요, 여성주의 연대활동!

1) 이주 여성 노동자 연대 활동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이중 착취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단속 추방과 사업장에서의 일상적인 성폭력에 직면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이주 노조 안에서의 여성주의 교양 사업과 정기적인 신문 발행을 하겠습니다. 학내에서의 공개 세미나와 토론회, 소식지 발행을 통해, 고민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 가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2) 다양한 여성주의 단체와 연대 활동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다양한 학내·외 여성주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토론을 이어나가고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1) 여성주의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미나와 강연회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2) 여성학 도서관, '페미니리'

여성주의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를 개편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4. 똑똑, 여성주의 문 두드리기

5. 유쾌하고 발랄한 여성주의 축제 만들기

1) 여성제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말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18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고 있는

류김지영 · 김선명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6. 소통 채워나가기

1) 총여학생회 신문 발행

총여학생회의 사업 진행 상황과 그때그때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신문을 발간하겠습니다.

2) 다시 여는 '여자들의 방'

<http://femispace.cyworld.com>

여성의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기 위해 만든 공간인 여자들의 방이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들의 방의 콘텐츠를 확장하고, 더 활발하고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 생리결석제

생리통,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생리 결석제의 도입을 통해 월경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성폭력 상담실 상담원 확충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과 사건 처리, 예방 교육 등의 많은 업무를 단 한 분의 상담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실 규모의 확장과 상담원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3) 교수 반성폭력교양 이수 요구

현재 교수 반성폭력 교양 이수가 학칙 상 의무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행 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7. 여성의 교육권확보를 위한 교육투쟁